

일본 경제 동향 (2014. 10월)

경기회복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난관

< 목 차 >

I . 일본 경제 지표	1
II .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회복 부진	2
2.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7
3. 엔저 지속하에 고주가·고금리 소강상태	9
4. 8월 해외직접투자 감소	11
III . 일본의 주요 정책	13
1. 소비세 재인상 논의와 디플레이션 탈출 문제	13
IV . 한일 경제관계 분석	17
1. 2개월 연속 대일무역적자 확대	17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19
3. 9월 한국인 일본방문, 일본인 한국방문 모두 감소	21
V . 참고 자료	22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2
2. 일본의 주요 경제일정	24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2	2013	2013	2014			2014		
				4/4	1/4	2/4	3/4	7월	8월	9월
GDP증가율(연율,%)		1.5	1.5	-0.5	6.0	△7.1(p)	-	-		
경기동향지수(2010=100)		-	-	111.5	-	-	-	109.9	108.3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0.6	△0.8	1.9	2.9	△3.8	-	0.4	-1.9	-
소비자물가	전기비	△0.1	0.4	0.3	0.2	2.3	-	0.1	0.0	-
상승율(%)	전년동기비	△0.1	0.4	1.1	1.3	3.3	-	3.3	3.1	-
실업율(%)		4.3	4.0	3.9	3.6	3.6	-	3.8	3.5	-
수출(조엔)		63.7	69.8	18.1	17.5	17.6	18.3	6.2	5.8	6.4
수입(조엔)		70.7	81.3	21.8	22.4	20.2	21.2	7.2	6.8	7.3
무역수지(조엔)		△8.4	△11.5	△3.7	△5.0	△2.6	△2.9	△1.0	△1.0	△0.9
경상수지(조엔)		4.8	3.3	△1.4	△0.9	0.3	-	0.4	0.3	-
해외직접투자(조엔)		9.8	13.2	3.1	2.6	2.0	-	0.8	0.6	-
환율	달러	80.1	97.7	100.5	102.8	102.1	104.0	101.7	103.0	107.1
	원화(100엔)	1,413	1,123	1035.7	1,039	1,008.2	987.3	1,003	996	963
금리(10년물,%)		0.78	0.72	0.64	0.63	0.60	0.53	0.54	0.51	0.54
주가(닛케이)		9,612	13,651	15,388	14,958	14,655	15,562	15,379	15,359	15,948

주: (p)는 2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 부진

- '14.8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8.3으로 1.6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상승율은 보합 수준

- '14.8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율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0.9조엔 무역적자로 27개월 연속 적자

- '14.9월 수출은 6.4조엔 수입은 7.3조엔

☐ (환율) 엔화환율은 전월보다 엔저

- '14.9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07.1엔으로 전월대비 4% 엔저

* '14.9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63원으로 전월대비 3.3% 엔저·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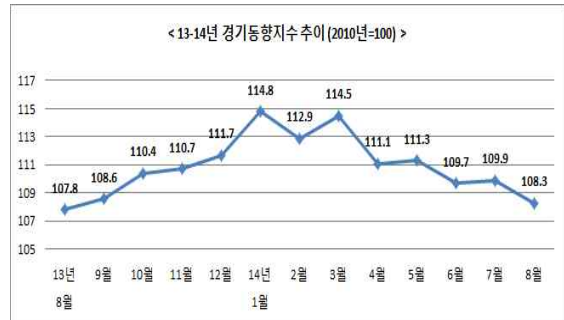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회복 부진

□ (총 합)

- 경기 기조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판단이 「답보상태」에서 「하향국면으로의 변화」로 하향수정

- ‘14.8월 일치지수로 본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8.3으로 전월보다 1.6p 하락



- 소비세 증세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억제 및 수출 부진 등과 함께 8월 광공업생산지수가 전월대비 1.9%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자료 : 내각부

□ (전 망)

- 달러당 110엔대의 엔저가속에 따라 수익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설비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투자와 임금인상으로 내수를 견인할 수 있을지가 경기회복의 관건
- 기업수익의 호조가 임금과 고용증가로 이어진다면, 증세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임
- 아베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14년 3분기 경기가 내년 10월 소비세율 재인상 가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재료임을 강조하고 있어,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추가 금융완화 등 일본정부·일본은행의 대응이 초점이 될 것임

□ (시사점)

- 경기동향지수가 금년 1월을 피크로 8월까지 6.8p 하락함에 따라 일본경제가 경기후퇴국면에 빠져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비세율 재인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GDP) 예의 주시되는 2014.3분기 성장율

- 2014년 2분기 GDP성장율이 하향 수정됨에 따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성장전망치 1%~1.2%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짐
- 특히, 소비세 재인상의 가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재료인 2014년 3분기 일본경제는 주택투자와 설비투자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소비는 증가로 반전, 공공투자는 작년도 경기대책의 피크아웃으로 감소, 수출도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회복으로 각각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
- 이토츠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GDP성장율은 전기비 연율 3%정도의 플러스, 전년동기비로도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전망
- 소비세율 재인상의 조건은 2014년 2분기에 마이너스성장으로 떨어졌던 GDP가 적어도 플러스로 반전되어야 하는데, 이토츠허경제연구소는 전기비 연율 3%정도의 성장이 필요최소조건으로 보고 있음
- 또 경기회복국면에서 발생한 악천후가 3분기 GDP를 전기비 0.2~0.5%p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시산인데, 이 같은 요인이 없어지면 경기는 회복국면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4분기 이후는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을 배경으로 소비가 점차 회복, 미국과 아시아 등 해외경기 확대와 엔저 등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 설비투자도 다시 확대 기조를 되찾을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2	2013	2013		2014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1.5	1.5	0.4	-0.1	1.5	-1.8	-	-
(전기비연율)			(1.8)	(-0.5)	(6.0)	(-7.1)	-	-
(전년동기비)			(2.3)	(2.5)	(3.0)	(-0.1)	-	-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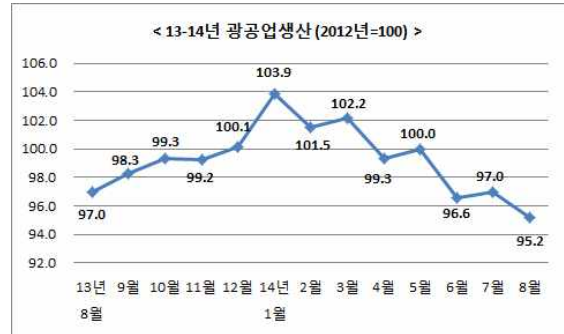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 2014.8월, 1.9% 감소로 반전

○ '14.8월 광공업생산은 시장의 예상(0.3% 상승)과는 반대로 1.9% 감소

- 소비세 인상의 반작용 영향 의한 감소가 오래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 악천후가 겹친 것이 주된 원인

○ 업종별로는 15개 업종중 10개 업종이 감소

- 범용·생산용·업무용 기계가 전월의 증가에서 반전한 외에, 수송기계, 태양전지, 에어컨 등의 전기기계도 감소
- 제3차산업은 소비세율 인상애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이 남아있어 횡보상태



자료: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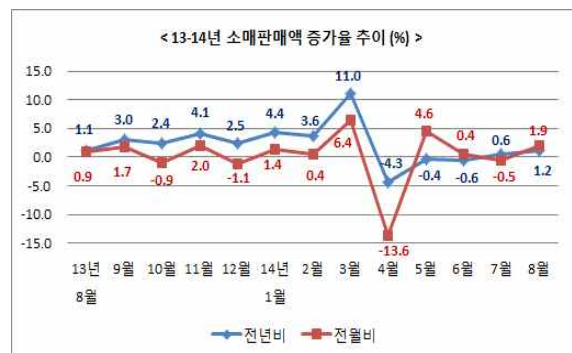
○ 당분간은 소비세 인상애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이 계속될 것이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제조공업생산 예측조사에 의하면, 9월에는 전월비 6% 증가, 10월은 0.2% 감소 예상

□ (소 비) 악천후 등으로 답보상태

○ 소비는 8월의 소매업판매액과 소비종합지수가 모두 증가를 보이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태풍과 호우 등 악천후의 영향 등으로 소비자마인드의 회복이 답보상태

- 8월 소매업 판매액은 전월비 1.9% 증가
- 소비의 수요측 통계인 실질소비지출은 0.3% 감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광공업출하지수 등)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0.4% 증가



자료: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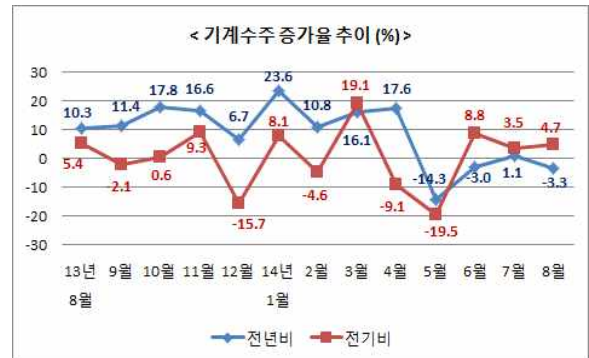
-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으로 소비자마인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나, 가수요 반작용으로부터의 회복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반작용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설비투자) 설비개신을 위한 투자의욕 상승

- '14.8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4.7% 증가, 3개월 연속 증가

- 기업들의 설비개신을 위한 투자의욕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가 부진한 소비에 대체하여 경기의 지지목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음

-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손부족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의욕이 높아지고 있고 해외로부터의 기계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최근 투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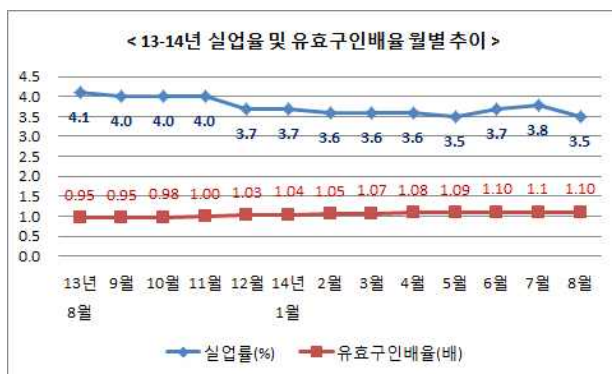
자료: 경제산업성

- 일본은행 단칸(2014년 9월)에 의하면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3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은 4년 연속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3년 연속 증가가 예상
- 특히 달러당 110엔대의 엔저가속에 따라 대기업들의 최종이익이 4.3% 증가, 설비투자계획도 13.4%증가로 고수준
- 설비과잉감이 일부 제조업에서 남아있기는 하나 개선되고 있어, 기업수익의 개선 등 등 배경으로 증가경향이 계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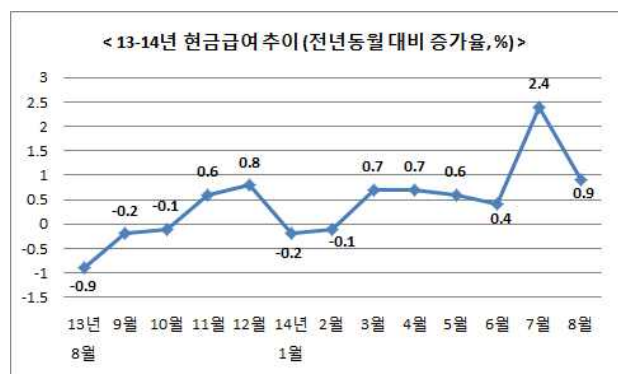
□ (고 용) 고용상황은 꾸준히 개선

- 2014년 8월 완전실업율은 3.5%로 7월의 3.8%에서 크게 개선, 소비세 인상의 영향과 악천후의 영향이 겹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를 지탱해주고 있음
- 여성 구직자 수의 감소가 실업율 저하로 이어짐
- 노동력 인구와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 취업자 수는 증가

- 8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10배로 6월 및 7월과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구인수가 구직자수를 상회, 일손이 부족한 상황
- 취업자 수는 6,363만명으로 건설업과 의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 일본은행 단칸(9월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감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착실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임금은 정기급여의 전조세와 함께 현금급여총액이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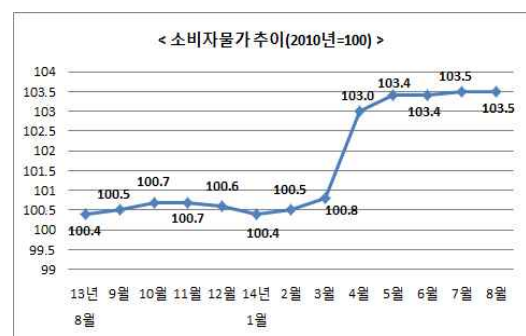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자료: 후생노동성

□ (소비자물가) 2014.8월의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보합수준

- '14.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은 전월 대비 0.0%로 전월과 보합세
-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 상승, 15개월 연속 상승
- 전기요금(전년동월비 7.6% 상승)과 휘발유(5.7% 상승) 등 에너지가격의 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



자료: 총무성

- 일본은행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를 2.0%로 보고 있어, 소비세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
- 앞으로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목표 2% 달성을 위해 추가 금융완화도 예상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2.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 (총 합) '14.9월에도 0.9조 엔의 무역적자로 27개월 연속 적자

- '14.9월 무역수지는 전월과 비슷한 0.9조 엔의 적자를 내면서 27개월 연속 적자 행진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2,342억 엔에서 6,695억 엔으로 크게 확대된 한편, 對 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6,376억 엔에서 5,407억 엔으로 축소

< 2014년 9월 일본의 수출입 (단위: 조엔, %) >

	2014.8월			2014.9월			2014.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5.8	-1.3	-6.5	6.4	6.9	10.3	53,342	3.2
수 입	6.8	-1.5	-5.6	7.3	6.2	7.4	63,808	7.4
무역수지	-1.0	-2.2	-1.6	-0.9	1.6	0.8	-10,477	35.0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출) 금액, 물량 모두 증가

- '14.9월 수출은 8월보다 10.3% 증가한 6.4조 엔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8.9% 증가
- 그러나 2014년 3분기 전체로 본 수출물량증가율은 0.6%에 그치고 있어, 이 정도로는 경기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 특히 소비세 인상여부를 판단하는 3분기 GDP성장에 대한 외수의 기여도는 거의 제로가 될 전망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순이며, 전월과 비교하여 철강과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순위가 바뀜
 - 5대 수출품목 모두 전월보다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의 수출증가율이 32.7%로 가장 높음
- 주요 수출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증가한 가운데, 對 미국 수출증가율이 전월 비 13.3%로 가장 높음

< 2014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억엔, %) >

순위	품목	2014.8월			2014.9월			2014.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7,718	-2.9	-22.4	10,238	7.0	32.7	79,385	4.4
2	철강	3,190	-1.7	2.5	3,480	14.0	9.1	29,191	26.2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263	0.9	3.8	3,330	7.9	2.1	26,656	0.6
4	자동차부품	2,644	-7.2	-13.7	3,011	1.5	13.9	25,465	-0.7
5	과학광학기기	2,043	4.0	0.4	2,141	11.5	4.8	17,605	8.3

자료: 일본 재무성

< 2014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단위: 억엔, %) >

순위	국가	2014.8월			2014.9월			2014.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0,226	-4.4	-9.4	11,582	4.4	13.3	97,735	3.4
2	중국	11,160	-0.2	-1.5	11,544	8.8	3.4	97,358	6.8
3	ASEAN	8,900	-0.6	-4.3	9,634	6.9	8.2	80,733	-0.1
4	EU	5,964	5.6	-7.8	6,497	0.7	8.9	55,947	9.5
5	한국	4,307	-6.1	-1.7	4,712	3.2	9.4	39,974	-3.2
6	홍콩	3,203	-1.6	-9.7	3,904	11.8	21.9	29,087	8.4

자료: 일본 재무성

□ (수 입) 엔저에 따른 수입액 증가

- ‘14.9월의 수입은 8월보다 7.4% 증가한 7.3조 엔
 - 수입 물량도 전월 대비 7.8% 증가
- 수입이 증가된 데는 감소된 데는 엔저로 수입액이 확대된 외에, 액화천연가스 (LNG)등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
- 수입액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통신기, 의류 및 동 부속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8월과 비교하여 석유제품 대신에 통신기기가 포함
 - 원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증가
 - 특히 통신기의 수입증가율이 전월비 209.7%로 가장 높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 주된 요인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전월비 35.1%로 가장 높음

< 2014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억엔, %) >

순위	품목	2014.8월			2014.9월			2014.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11,401	-5.2	-2.6	11,325	-2.2	-0.7	107,139	-0.6
2	액화천연가스	5,942	3.3	-11.0	6,158	21.0	3.7	57,840	21.6
3	통신기	1,227	-21.3	-2.5	3,800	11.6	209.7	18,558	-0.5
4	의류·동부속품	3,062	-8.0	18.1	3,714	2.4	21.3	23,881	-0.1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255	3.7	2.0	2,579	6.9	14.3	21,227	19.3

자료: 일본 재무성

< 2014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단위: 억엔, %) >

순위	국가	2014.8월			2014.9월			2014.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3,499	-5.3	-7.2	18,240	8.3	35.1	138,877	9.2
2	ASEAN	9,296	-0.9	-10.0	10,126	10.8	8.9	90,855	7.4
3	EU	6,308	-1.5	-9.3	6,988	4.2	10.8	60,866	8.3
4	미국	6,371	10.7	-1.2	6,175	6.9	-3.1	55,801	10.7
5	호주	4,172	-4.6	-10.2	4,197	-1.1	0.6	38,092	2.2
8	한국	2,621	-5.8	-13.7	2,867	5.4	9.4	26,092	2.9

자료: 일본 재무성

3. 엔저 지속하에 고주가 · 고금리 소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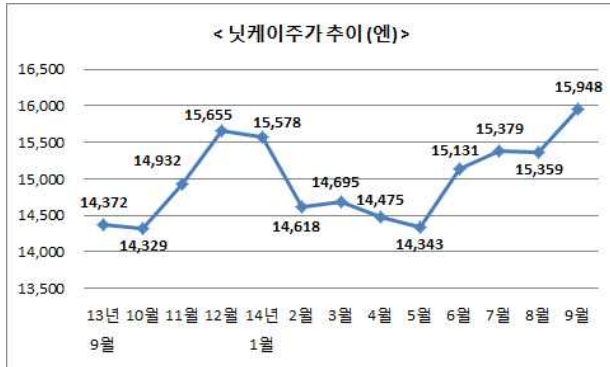
□ (주 가)

- '14.9월 평균 주가는 엔저의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3.6% 상승한 15,948엔
- 그러나 10월 들어서는 하락, 10월 22일 기준으로 15,196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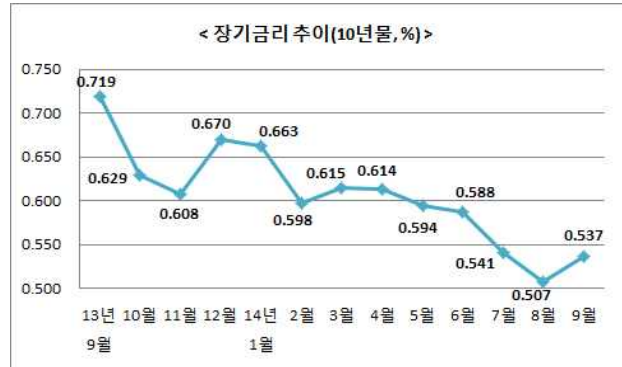
□ (금 리)

- '14.9월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과 유럽의 금리상승 국면에서 엔저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5.9% 상승한 0.537%

- 10월 들어서는 주가하락과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수요증가로 하락, 10월 22일 기준으로 0.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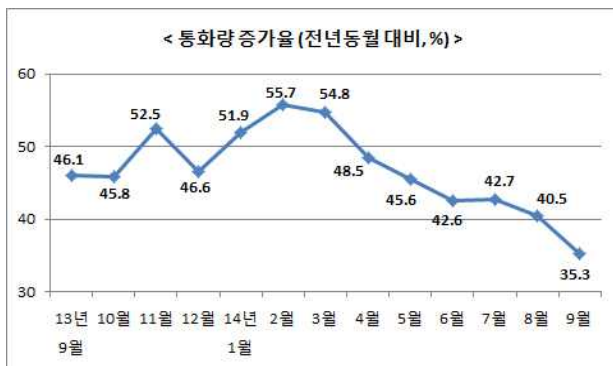
자료: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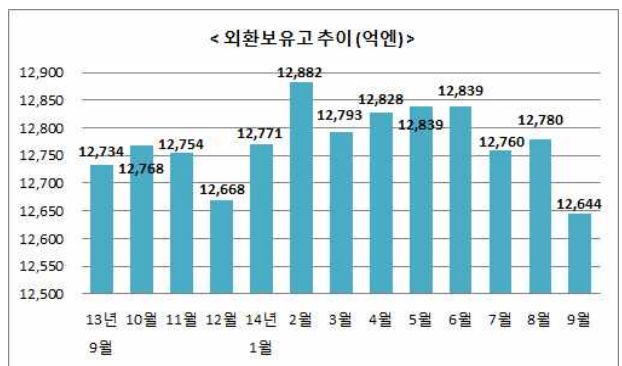
자료: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4.9월 머니트리베이스(평균)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5.3%



자료: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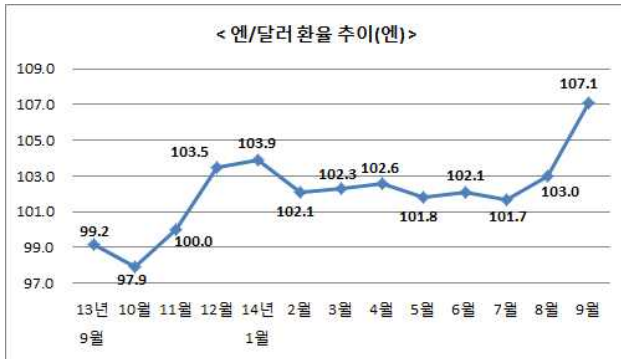


자료: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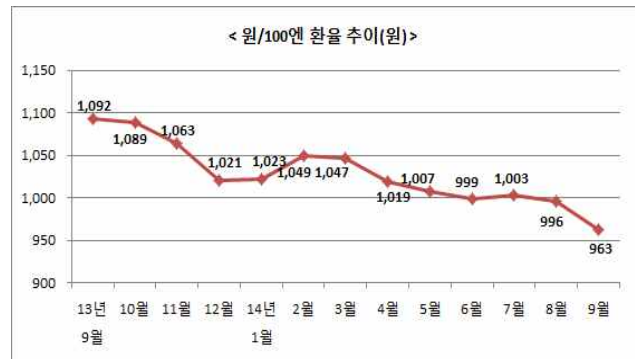
□ (환율)

- ‘14.9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조기 금리 인상 논의 등으로 8월보다 4.0% 상승한 107.1엔
- 10월 들어서는 10월 22일 기준으로 107.03엔
- 2014년부터 102엔대를 유지하던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 및 조기 금리인상 논의, 일본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의 일시적인 침체 및 무역적자 계속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14.9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63원으로 8월의 996원엔 비해 3.3% 엔저



자료: 일본은행



자료: 한국은행

4. 8월 해외직접투자 감소

□ (동향)

- '14.8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6,392억 엔으로 전월대비 18.3%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기준, 억엔, %) >

		2013	201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금 액		131,946	7,376	6,096	7,356	6,757	7,828	6,392
증가율	전기비	34.9	16.4	-17.4	20.7	-8.1	15.9	-18.3
	전년동기비	34.9	-21.0	-59.4	-18.4	-21.4	-79.0	20.2

자료: 일본 재무성

- 북미 지역과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감소
 -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월에 이어 8월에도 341.3%의 높은 증가를 보임
 -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전월에 이어 8월에도 18.4% 증가
 - 반면 유럽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직접투자는 각각 70.4% 및 13.4%의 감소를 보임
 - 다만, 아시아 지역 중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1.8%의 증가를 보임

<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3년	2014.7월			2014.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31,946	7,828	15.9	-79.0	6,392	-18.3	20.2
아시아	39,294	2,803	-1.1	20.7	2,428	-13.4	25.2
중 국	8,855	459	-45.0	-25.1	513	11.8	0.0
한 국	3,209	448	122.9	35.8	267	-40.4	-31.0
북 미	45,698	1,695	50.7	-93.0	2,136	26.0	15.6
미 국	42,933	1,550	47.2	-93.6	1,835	18.4	5.4
중남미	9,902	225	226.1	-93.7	993	341.3	49.5
유 럽	31,567	2,658	66.5	-59.4	789	-70.4	143.5
대양주	5,895	171	-75.0	-78.7	-36	-	-
중동	-92	64	-67.9	700.0	26	-59.4	73.3
아프리카	504	212	-15.5	1077.7	55	-74.1	120.0

자료: 일본 재무성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2가지로 집약

- 첫째, M&A형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13.4월~'14.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
 -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는 자원확보형 투자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 진출이 확대
- 둘째,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엔저에도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때문임
- 셋째, 일본기업들의 직접투자·생산거점이 소비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현지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로 대체
 - 대미 수출 승용차의 경우, 생산거점이 일본으로부터 멕시코로 이점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대미수출이 멕시코 현지기업으로부터의 대미수출로 대체
 - 엔저가 되더라도 현지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로 역대체되기 어려움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 소비세 재인상 논의와 디플레이션 탈출 문제

- 최근 일본경제의 2가지 정책적 화두는 소비세 재인상 여부와 디플레이션의 탈출 여부임
- 소비세 재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고해 볼 수 있다는 아베총리의 발언과 함께, 내각관방참여로 아베노믹스에 참여하고 있는 하마다 코이치 교수가 소비세 재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디플레이션 탈출 문제에 대해서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추가 금융완화 발언과 함께 물가상승율 2% 목표달성의 기한연장 논의가 확산

1) 배경

□ 일본정부의 GDP성장율 전망치 실현가능성 낮아져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2015년 10월 소비세 재인상(8%→10%)은 물론, 일본 경제를 다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회복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도 금융완화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임
- 그러나 2014년 2분기 GDP성장율이 하향 수정됨에 따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성장전망치 1%~1.2%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짐

□ 수급 갭 확대

- 2014년 2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급갭이 GDP대비 2%정도까지 확대되었으나, 소비자물가상승율은(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 금년 4월 이후에도 3%대 전 반을 유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기대가 후퇴하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순조롭게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수급 갭의 축소로 인플레이션율이 플러스권에 정착, 디플레이션 탈출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1%를 하회하는 잠재성장율을 전제로 하더라도, 전기비 연율 2%정도의 성장에 그치는 한, 수급 갭 해소에는 2015년도 말(2016년 3월)까지 기간이 소요됨
- 따라서 예정대로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증세 후 경기냉각으로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리스크에 대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줄고 있는 금융완화의 물가상승효과

- 더욱이 최근 작년 4월 일본은행이 목표로 설정했던 2년 내 2%의 물가상승을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음
- 아베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에는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었으나 그 후 1년 8개월이 지난 금년 8월에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비 3.1% 상승
- 그러나 이 수치에는 4월의 소비세율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2%정도를 제외하면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2%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작년말 이후 연율 1%이상의 물가상승이 정착하자,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재정·금융을 확대하면서 경기의 회복·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리플레이션파들은 그 이유를 금융완화정책의 성과로 돌리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금융정책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
- 8월의 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증율은 2.3%,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하면 0.5%정도임.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코어물가로는 1.1%정도의 상승으로 이중 절반가량은 전기요금 등 에너지가격의 상승효과임
- 더욱이 최근 바렐당 82달러대의 국제유가 급락은 엔저의 물가상승효과를 완화시키면서 물가상승목표 2% 달성에 악재로 작용

2) 주요 논의 내용

□ 소비세율 재인상의 조건과 성장률

- 아베총리는 소비세율 재인상 문제를 놓고, 일본경제가 2014년 3분기에 성장궤도를 되찾을지 여부를 중시, 경기의 냉각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재정상황이 역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미루어 볼 때, 소비세율 재인상의 조건은 2014년 2분기에 마이너스성장으로 떨어졌던 GDP가 적어도 플러스로 반전되어야 하는데, 이토츠허경제연구소는 전기비 연율 3%정도의 성장이 필요최소조건으로 보고 있음

□ 엔저를 통한 물가상승책의 한계와 디플레이션 목표달성 기한 연장

- 최근 소비세율 재인상과 관련하여 2014년 3분기 성장률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시작단계에 있는 디플레이션 탈출움직임을 정착시키는 것임
- 최근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일층의 엔저이나 이것은 일본경제 전체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음
- 결국, 내년 봄까지 2%의 물가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에서는 추가 금융완화와 함께 목표달성 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논의가 시작
- 다만, 물가상승율이 1%든 2%든 일본경제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현재 상태에서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어 보임

3) 시사점

- 최근 일본의 물가상승에는 원전 정지 등 금융정책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큼
 - 다만, 과거 2년 에너지 이외의 물가도 가격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그것이 주로 2013년중에 발생, 2014년 들어서는 상승률이 둔화된 점임
 - 일본의 리플레이션파들이 주장하는 대담한 금융완화가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금융완화가 계속되는 한 물가상승이 둔화되지는 않음
- 이는 물가상승목표 달성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실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져야만 함을 시사

- 한편, 일본의 소비세 재인상에 조건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변수는 성장과 재정재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닛케이 칼럼(2014년 10월13일자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에서 소비세증세는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하마다 코이찌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 그 근거로서 현재 일본경제가 경기의 갈림길에 있는 만큼 소비세 재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법인세 감세야말로 성장과 재정개건 모두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2개월 연속 대일무역적자 확대

□ (총 합)

- ‘14.9월 대일무역적자는 1,961백만 달러로, 8월에 비해 276백만 달러 확대
- 대일 수출은 2,735백만 달러, 대일 수입은 4,696백만 달러

< 2014년 9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2014.8월			2014.9월			2014.1-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수출	2,538	-8.1	-15.4	2,735	-6.2	7.8	24,443	-4.6
대일수입	4,223	-13.0	-8.8	4,696	-4.2	11.2	40,334	-11.1
무역수지	-1,685	-408	54	-1,961	-24	276	-15,891	-3,870

주)수출, 수입의 증감은 %, 무역수지의 증감은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4.9월의 대일 수출은 8월에 비하여 7.8% 증가
-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증가율 3.5%, 일본의 수입증가율 7.4% 모두 대일수출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어, 엔저에도 상대적으로 대일수출은 양호한 편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9월	-6.2	7.8	6.9	3.5	6.2	7.4
2014.1-9월	-4.6	-	2.9	-	7.4	-

- ‘14.9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석유화학제품과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대일수출이 증가
- 산업용전자제품이 20.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금속광물(16.5%)과 정밀화학제품(15.3%)이 15%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4년 9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8월			2014.9월			2014.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538	-8.1	-15.6	2,735	-6.2	7.8	24,443	-4.6
1	광물성연료	588	-20.6	-12.1	646	-24.9	9.9	5,129	-19.8
2	철강제품	314	10.9	-9.5	322	11.6	2.5	3,091	18.7
3	산업용전자제품	164	-30.7	-37.0	198	1.1	20.7	2,011	-12.6
4	전자부품	181	-22.8	-6.7	188	-29.1	3.9	1,803	-15.3
5	석유화학제품	136	-6.2	-29.2	132	12.8	-3.0	1,248	-11.4
6	정밀화학제품	111	-1.5	-22.4	128	15.7	15.3	1,137	5.0
7	금속광물	97	8.2	10.3	113	-13.1	16.5	829	-15.7
8	수송기계	92	7.7	-22.7	98	6.2	6.5	951	10.8
9	기계요소공구·금형	87	13.0	-25.6	87	12.3	0	852	17.8
10	농산물	88	3.3	-10.2	83	2.9	-5.7	818	6.1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4.9월의 대일 수입은 8월에 비하여 11.2% 증가
 - 대일수출증가에도 이를 상회하는 높은 대일수입증가가 대일무역적자 확대요인으로 작용
 - 동 기간중 총수입증가율은 전월비 3.4%로 대일수입증가율을 하회
- ‘14.9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모든 품목이 증가한 가운데, 석유화학제품이 18.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전자부품(14%)과 산업용전자제품(10.7%)이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4년 9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8월			2014.9월			2014.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4,223	-13.0	-8.8	4,696	-4.2	11.2	40,334	-11.1
1	철강제품	668	-7.0	-12.0	709	6.9	6.1	6,368	-8.3
2	전자부품	542	-5.4	5.4	618	-8.9	14.0	4,619	-13.4
3	석유화학제품	512	-4.7	-10.8	605	17.6	18.2	4,583	-10.8
4	정밀화학제품	326	-5.4	-14.4	354	-0.3	8.6	3,247	-3.4
5	기초산업기계	280	-35.0	2.2	295	-36.3	5.4	2,626	-25.3
6	플라스틱제품	229	-19.6	-9.8	241	-9.9	5.2	2,170	-13.4
7	산업용전자제품	197	-5.5	-10.0	218	-11.2	10.7	2,148	4.3
8	수송기계	202	23.4	-7.0	217	22.2	7.4	1,867	6.9
9	산업기계	184	-2.3	-26.4	199	6.3	8.2	1,807	-2.0
10	정밀기계	158	-42.7	9.0	173	-18.7	9.5	1,801	-18.2

자료: 한국무역협회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 (동향) : '14.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증가로 반전

○ '14.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489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 21.3% 증가

- 동 기간중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14.9%의 감소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는 10% 감소

○ 한편, 2014년 1~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누계는 1,638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 이 역시 동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37.9%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도 24.1%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1분기		2014.2분기		2014.3분기		2014.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99 (-11.6)	746 (2.3)	80 (-19.2)	403 (-46.0)	72 (-10.0)	489 (21.3)	251 (-24.1)	1,638 (-16.6)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571 (-15.3)	5,062 (33.1)	583 (2.1)	5,272 (4.1)	563 (-3.4)	4,484 (-14.9)	1,717 (-11.2)	14,818 (37.9)

주: ()내는 전기 대비 증가율 2014.1-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최근 한·일 기업간 산업협력 사례)

- 일본 베름사가 2014년 9월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의 3,300여㎡ 부지에 40억여원을 투입, 공장 착공예정(2014.7.16.)
- LG화학이 닛산자동차에 전기자동차용 차세대전지 공급 검토(2014.9.16)
 -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에 납품함으로써 생산규모 확대, 코스트경쟁력 강화 외에도 차대형전지의 규격경쟁 경쟁우위 확보에도 유리
- NTT도코모가 한국기업 등과 공동으로 번역소프트 개발기로(2014.9.29.)
 - 공동출자회사인 미라이번역(자본금 9억 9,000만원)을 10월에 설립, 도코모가 51%, 한국의 번역소프트개발회사인 시스트란인터내셔널이 30%, 음성인식시스템개발 휴트렉이 10% 출자

□ (시사점)

-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일본기업의 對 한국 투자가 중요한데, 당분간 엔저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다가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한일경제 교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됨

3. 9월 한국인 일본방문, 일본인 한국방문 모두 감소

□ (일본인 방한) ‘14.9월은 8월 급증에 따른 반작용 영향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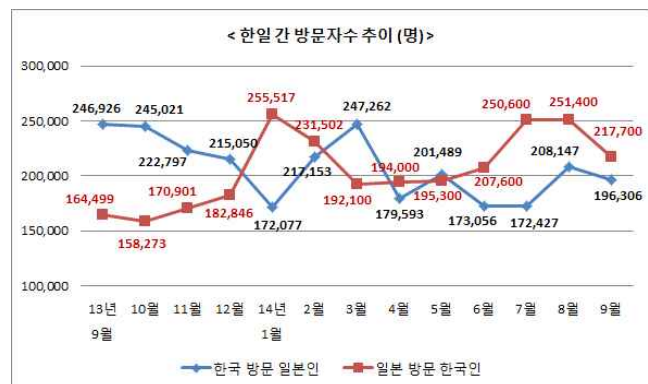
- ‘14.9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196,306명으로 8월보다 5.7% 감소
- 일본 학교의 방학 등에 의한 8월의 급증으로부터의 반작용 영향이 9월 감소의 주된 원인

□ (한국인 방일) ‘14.9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도 크게 감소

- ‘14.9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17,700명으로 8월보다 13.4% 감소
- 그러나 전년동기비로는 32.3% 증가

- 9월중 일본 방문 총 외국인수도 전월 비로는 감소했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

- 전년동기비 외국인의 방일여행자수가 증가한 데는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방일 프로모션, 항공편의 신규취항 및 증편, 대형 크루즈선의 기항, 엔저 등이 기여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4.9월~10월)

□ 국내기관

- 『한·중·일 10대 미래 유망 기술·산업 비교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4년 10월14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state=view&idx=48803&recom=1552&ord=0
-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4년 10월10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0203&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엔저와 우리 수출입 동향 및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10월3일
<http://iit.kita.net/>
- 『소비세인상 이후의 일본경제 평가 및 주요 현안과제』 한국은행, 2014년 10월2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0062&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장기불황에서 살아남은 일본기업의 특징』 LG경제연구원, 2014년 9월30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4&ctype=g&grouping_seq=01040200_483
- 『일본, 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시도』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9월24일
<http://iit.kita.net/>

□ 일본기관

- 『일본의 대아시아 통상정책: 일본의 아시아 전략』 재무종합정책연구소, 2014년 10월24일
http://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6/r116/r116_01.pdf
- 『최근의 중국정세와 중일관계』 환일본해경제교류센터, 2014년 10월11일
http://www.near21.jp/kan/center/publication/journal/93/93_1.pdf
- 『한국경제의 과제 : 차이나임팩트의 극복』 일본종합연구소, 2014년 10월10일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7668.pdf>
- 『주요 25개 수출국가들의 생산비용 비교』 BCG, 2014년 10월9일
<http://www.bcg.co.jp/documents/file172753.pdf>
- 『지역과 중소기업의 브랜딩』 남도경제연구소, 2014년 10월8일
<http://www.nantoeri.or.jp/research/pdf/tokusyu/201410-2.pdf>
- 『한일관계에 관하여』 야마나시종합연구소, 2014년 10월8일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RID/226162/>
-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서 코퍼레이트거버넌스 개혁』 EY종합연구소, 2014년 10월 7일
<http://eyi.eyjapan.jp/knowledge/insight/pdf/Insight-02-report04.pdf>
- 『한일경제의 향방과 지역경제』 신금중금지역·중소기업연구소, 2014년 10월2일
<http://www.scbri.jp/PDFgeppou/2014/2014-10.pdf>
- 『메가 FTA로서 RCEP의 의의와 과제』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년 10월2일
<http://www.iti.or.jp/flash211.htm>

2.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10월)

일자	주요 행사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산업기술페어2014(한일재단) • 한일외무차관급 전략대화(도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소위원회(경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원자력시설감시·평가 검토회(원자력규제위원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8월 경기동향지수 속보치(내각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규제위원회 • 8월 국제수지(재무성)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간사이 경제포럼(오사카)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재무장관회담(워싱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세계은행총회(워싱턴)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채무관리에 관한 간담회(재무성) : '15년도의 국채발행 계획 논의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신에너지 소위원회(경산성) • 핵연료시설의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일본의 '수익력' 창출연구회(경산성) • 8월 광공업생산지수(경산성)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핵연료시설의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신에너지 소위원회 계통 워킹그룹 회의(경산성)
1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M 정상회의(밀라노)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EU FTA 제7차 협상회의(브뤼셀)
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재무장관회의(베이징) • 경제재정자문회의(총리실)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소위원회(경산성)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규제위원회 • 9월 무역통계(재무성) • 9월 방일 외국인객수(일본정부관광국)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수익력' 창출연구회(경산성)
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의원연맹 총회(서울)
2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각료회의(시드니)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